

## 히브리어 겸양 표현의 번역

### —사무엘상 1-3장의 대화문을 중심으로—

김유기\*

#### 1. 성경 번역과 높임법

한국어에는 높임법이 발달되어 있어 대화의 상대나 제삼자를 높이기 위해 여러 장치가 사용된다. 한국어 화자들은 높임의 대상이나 관련된 사물을 가리키기 위해 특별한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높임을 표현하는 선어말 어미를 활용하기도 한다. 이처럼 문법과 어휘 모두에서 높임의 범주를 나타내는 표지가 발달되어 있는 한국어와 달리 성경 히브리어는 높임법이 그만큼 발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히브리어 성경을 한국어로 옮기는 번역자는 원문에 없는 높임 표현을 대상어의 체계에 맞춰 번역해야 하는 문제를 마주하게 된다. 또한 대상어인 한국어의 높임법 역시 사회의 구조와 상황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시대에 따라 변한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성경을 번역할 때 높임법을 잘못 사용해서 번역하거나 오늘날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높임법을 사용하여 번역했을 때 성경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거부감을 줄 수 있다. 더 나아가 적절하지 않은 높임법을 사용함으로써 성경을 읽는 공동체의 구조적인 위계 의식을 강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자신을 가리켜 상대방의 종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겸양 표현’이 구약 성경 대화문 안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고찰하면서 한국어 겸양 대명사의 기능과 비교한다. 이를 바탕으로 사무엘상 1-3장의 대화문에 나오는 겸양 표현을 비롯한 높임 표현이 주요 한국어 번역본에서 어떻게 옮겨졌는지를 살핀다. 마지막으로 겸양 표현을 문자적으로 번역할 때 생기는 문제에 관해 논의하면서 새로운 개정이나 번역의 방향을 제시한다.

---

\* Johns Hopkins University에서 근동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서울여자대학교 기독교학과 조교수. [ykim@swu.ac.kr](mailto:ykim@swu.ac.kr). 이 논문은 2016학년도 서울여자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음.

## 2. 히브리어 겸양 표현과 그 번역에 관한 연구

밀러(C. L. Miller)는 히브리어에서 화자와 청자를 모두 대명사로 가리키는 일반적 지시 외에 여러 높임 표현이 사용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이 표현들을 화자나 청자 중 누구를 중심으로 하느냐에 따라 분류하였다. 그 중 화자가 자신을 낮추어 청자의 종이라고 하는 겸양 표현은 2인칭 접미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청자 중심 표현으로 분류하고 그 통사적, 화용적 특성을 분석한다.<sup>1)</sup> 러벨(E. J. Revell)은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이야기의 등장인물이 언급되거나 불리는 방식 중 하나로 높임 표현을 다루면서 이를 1인칭이나 2인칭 대명사/접미사의 사용과 비교하여 논의한다.<sup>2)</sup> 또한 러벨은 히브리어 1인칭 대명사의 두 형태 אני와 אנכי에 대해 논하면서 상대적으로 지위가 높은 화자는 기본적으로 אני를 더 많이 사용하고 그렇지 않은 화자는 기본적으로 אנכי를 더 많이 사용한다는 사실을 밝힌다.<sup>3)</sup> 이 점에서, אני는 항상 겸양의 의미로 쓰이는 것은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 겸양 표현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디 줄리오(M. Di Giulio)는 대화를 부드럽게 만들어 주는 경감 장치 중 하나로 히브리어의 높임 표현을 다루면서, 겸양 표현을 사용할 때 “화자가 자신과 청자 사이의 거리를 띄우고 경의를 표하기 위해 자신을 낮추는” 것으로 이해한다.<sup>4)</sup> 브리지(E. J. Bridge)는 시편의 겸양 표현에 여호와에 대한 저자의 복종과 의존의 감정이 드러나는 것으로 생각한다.<sup>5)</sup> 또한 창세기 33장에서 야곱이 에서를 만날 때 사용한 겸양 표현과 존대 표현을 공손 이론의 관점에서 분석한다.<sup>6)</sup> 김유기는 사무엘서에서 다윗이 참여한 대화를 중심으로 겸양 표현이 문맥 안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관찰한다. 이 표현이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

1) C. L. Miller, *The Representation of Speech in Biblical Hebrew Narrative: A Linguistic Analysis*, Harvard Semitic Museum 55 (Winona Lake: Eisenbrauns, 1996), 269-281. 본 논문은 히브리어에서 1인칭을 가리키는 높임 표현에 대해서는 ‘겸양 표현’, 2인칭을 가리키는 높임 표현에 대해서는 ‘존대 표현’이란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2) E. J. Revell, *The Designation of the Individual: Expressive Usage in Biblical Narrative* (Kampen: Pharos, 1996), 267-322.

3) E. J. Revell, “The Two Forms of the First Person Singular Pronoun in Biblical Hebrew: Redundancy or Expressive Contrast?”, *JSS* 40 (1995), 211.

4) M. Di Giulio, “Mitigating Devices in Biblical Hebrew”, *Kleine Untersuchungen zur Sprache des Alten Testaments und seiner Umwelt* 8/9 (2008), 55.

5) E. J. Bridge, “Loyalty, Dependency, and Status with YHWH: The Use of ‘bd in the Psalms”, *VT* 59 (2009), 360-378.

6) E. J. Bridge, “The ‘Slave’ Is the ‘Master’: Jacob’s Servile Language to Esau in Genesis 33.1-17”, *JSOT* 38 (2014), 263-278.

을 가리키는 것은 사실이지만 상황에 대한 화자의 판단이나 느낌에 따라 생략되기도 하고 사용되기도 한다는 점을 밝힌다.<sup>7)</sup>

전무용은 한국어 대명사에 관한 로스와 언더우드의 문법 기술을 살피고 초기 번역본을 거쳐 최근 번역본까지 여러 한국어 번역본에서 대명사가 어떻게 번역되고 있는지를 통시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화 참여자들의 사회적 지위나 대화의 성격에 따라 어떤 형태의 인칭 대명사가 각 번역본에서 사용되고 있는지를 상세하게 보여 준다.<sup>8)</sup> 김성언은 ‘정중 이론’과 한국어 번역본 성경의 높임법에 관한 최근 연구를 정리하면서, 에스더서의 히브리어 원문을 바탕으로 한국어 번역본들의 높임법 사용에 관심을 기울인다. 번역본들이 이야기의 서술문과 대화문을 번역할 때 한국어의 높임법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고찰하고 주인공들의 사회적 지위와 오늘날의 한국어 용례를 고려한 종결 표현의 사용을 제안한다.<sup>9)</sup>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히브리어 겸양 표현의 기능과 한국어 겸양 대명사의 기능을 비교하면서 사무엘의 성장 이야기(삼상 1-3) 대화문의 겸양 표현을 한국어 번역에서 어떻게 기능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지 탐색한다.

### 3. 히브리어 겸양 표현과 한국어 번역

#### 3.1. 히브리어 겸양 표현

히브리어 대화문에서 화자는 청자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표현을 사용한다. 상대방을 높여 부르거나 가리키는 표현에는 אֲדֹנָי ‘나의 주님’, הַמֶּלֶךְ ‘임금님’, אֲדֹנָי הַמֶּלֶךְ ‘나의 주 임금님’, הַשֵּׁר ‘장군님’ 등이 있고 상대방을 높이면서 동시에 친근감을 드러내는 호칭어에는 אָבִי ‘나의 아버지’나 אִמִּי ‘나의 어머니’ 등이 있다.<sup>10)</sup> 히브리어 겸양 표현은 화자가 자기를 낮추어 스스로를

7) Y. Kim, “Deferential Self-Reference in the Book of Samuel”, *IT* 65 (2015), 588-605.

8) 전무용, “한국어 성경의 대명사 고찰”, 『성경원문연구』 19 (2006), 96-122.

9) 김성언, “정중 어법과 우리말 존대법: 에스더기를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37 (2015), 84-106.

10) 상대방을 높이지 않으면서 친근감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אחי ‘나의 형제’, אחותי ‘나의 자매’, בני ‘나의 아들’, בתי ‘나의 딸’ 등이 사용된다. ‘나의’가 포함된 표현들을 번역할 때 ‘나의’를 생략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나 여기에서는 원어 표현을 문자 그대로 옮기기 위해 사용한다. 또한 ‘형제’나 ‘자매’ 등은 적절한 문맥이 주어지는 경우 ‘형’, ‘동생’, ‘오빠’, ‘누나’ 등으로 옮기는 것이 자연스럽다.

‘당신의 종’으로 지칭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청자를 높이는 표현이다.<sup>11)</sup> 화자가 남자면 עבדך, 여자면 אמתך 또는 עפחה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여자가 사용하는 이 두 표현의 기능적인 차이는 크지 않은 것 같다.<sup>12)</sup> 화자가 대화 상대를 높이기 위해 자기를 상대의 종이라 가리키는 겸양 표현은 히브리어에 고유한 표현이 아니다. 아카드어, 아마르나 서신, 우가리트어 등 고대 셈어 문서 여러 곳에서 관찰된다.<sup>13)</sup> 이 경우 화자가 실제로 상대방의 종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 겸양 표현은 단순히 화자의 신분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다.

화자가 자신을 낮추는 데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요인이 작용한다. 그것은 사회적 지위의 차이와 친밀감이다. 자신을 상대방의 종이라 부르는 화자는 대체로 청자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이다. 구약 성경에서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자기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 앞에서 자신을 상대방의 종이라 부르는 경우는 없다. 그러나 지위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대화를 나눌 때라도 경우에 따라 화자가 자신을 청자의 종으로 지칭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다윗이 위기의 상황에서 자신을 요나단의 종으로 표현한다(삼상 20:7-8).<sup>14)</sup>

화자는 자신을 ‘당신의 종’이라 지칭함으로써 심리적으로 대화의 현장을 떠나 있는 제삼자가 되어 상대방과 직접적인 대면을 피한다. 이는 일종의 체면을 세우기 위한 대화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다. 러벨에 따르면 이러한 겸양 표현은 “1인칭과 2인칭 형태를 사용할 때 생성되는 친밀감의 표출을

11) ‘당신’은 오늘날 한국어에서 상대를 높이기 위해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의 종’이라는 번역은 적절하지 않지만 원문의 문자적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 사용한다. 이 점에서 다윗이 요나단에게 말할 때 자신을 “네 종”(『개역개정』 삼상 20:7-8)이라 가리키는 번역은 어색하기는 하지만 흥미롭다.

12) 다른 셈어와 달리 히브리어에는 여종을 가리키는 용어로 אמה와 עפחה라는 두 단어가 있다. 로이터는 אמה보다 עפחה가 더 겸손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E. Reuter, “שִׁפְחָה *šiphā*”, *TDOT* 15, 409. 그러나 이 두 단어가 위계적인 차이를 드러낸다는 증거를 찾기는 쉽지 않으며 기능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실제로 이 두 단어는 삼상 25:24-31이나 삼하 14:4-20에서 서로 번갈아가며 나오기도 한다. 최근 연구로 브리지(E. J. Bridge)의 글이 있다. E. J. Bridge, “Female Slave vs. Female Slave: אמה and עפחה in the HB”, *Journal of Hebrew Studies* 12 (2012), 1-21.

13) CAD A2, 251; C. Lindhagen, *The Servant Motif in the Old Testament: A Preliminary Study to the Ebed-Yahweh Problem in Deutero-Isaiah* (Uppsala: Lundequistaska Bokhandeln, 1950), 17; G. del Olmo Lete and J. Sanmartin, *A Dictionary of the Ugaritic Language in the Alphabetic Tradition* (Leiden; Boston: Brill, 2003), 74, 140. 오늘날 동남아시아의 여러 언어에서는 ‘종’의 의미를 지닌 단어가 1인칭 대명사로 사용된다고 한다. B. Heine and K. Song, “On the Grammaticalization of Personal Pronouns”, *Journal of Linguistics* (2011), 611.

14) Y. Kim, “Deferential Self-Reference”, 599-600. 밀리는 아론이 모세와 관계가 좋지 않을 때 자기 아우 모세를 ארני ‘나의 주’(출 32:22)라고 부른 사실을 지적한다. C. L. Miller, *The Representation of Speech*, 270 n. 44.

피함으로써 화자와 청자가 평등하다는 가정을 제거”하는 기능을 한다.<sup>15)</sup> 실제로 겸양 표현은 1인칭 대명사가 아니라 명사구이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3인칭으로 취급된다. 그래서 ‘당신의 종’을 주어로 하는 동사 서술어는 3인칭 활용형으로 나타난다.

한국어 1인칭 겸양 대명사인 ‘저’와 달리 히브리어 겸양 표현은 한 문장 안에서조차 일관되게 사용되지 않는다. 한국어에서는 1인칭을 ‘나’로 언급하는 경우 일관성 있게 ‘나’로 언급하고 ‘저’로 언급하는 경우에는 계속해서 ‘저’로 언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달리 히브리어 겸양 표현은 한 문장 안에 있는 1인칭 대명사나 접미사를 모두 대체하지는 않는다. 화자는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겸양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고 다른 1인칭 대명사나 접미사를 사용하기도 한다.

### 3.2. 한국어 겸양 대명사

한국어에서 사회적으로 높여야 할 대화 상대를 가리킬 때 ‘너’ 또는 ‘당신’과 같은 2인칭 대명사를 피하고 ‘선생님’, ‘사장님’, ‘교수님’ 등의 호칭어를 존대 표현으로 사용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히브리어도 이와 비슷한 전략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높인다. 그러나 이러한 존대 표현과 달리 일반 명사(구)를 사용하여 자기를 가리키는 겸양 표현은 오늘날 한국어에서 쓰이지 않는다.

이장희에 따르면 1894년 노비제도가 폐지되면서 ‘소복(小僕)’이나 ‘소비(小婢)’와 같은 예속 관계를 나타내는 용어가 사라진 후 ‘소인’ 등의 용어가 쓰이다가 이마저도 하층민의 신분 상승으로 화자와 청자의 간격이 좁아짐에 따라 사라지면서 3인칭 대명사 또는 재귀대명사에서 비롯된 ‘저’가 이를 대체하게 되었다.<sup>16)</sup> 1인칭 겸양 대명사 ‘저’는 화자 자신을 대화 현장에서 떨어져 있는 인물로 지시하여 직접성을 피하는 겸양 전략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리하여 다른 겸양 표시 명사들은 점차 사라지고 ‘저’만이 겸양을 표현하는 1인칭 대명사로 두루 쓰이게 된 것이다.

전무용은 1인칭 대명사 ‘저’에 대해, “‘상대방을 중심으로 하여 말하되, 나를 멀리 거리를 두어서 하는 표현’으로 사용함으로써, 말하는 이를 스스

15) E. J. Revell, *The Designation of the Individual*, 267.

16) 이장희, “겸양 대명사 ‘저’ 생성의 과정”, 『嶺南學』 19 (2011), 471-500. 이 설명에 따르면 ‘소복’이나 ‘소비’는 원래 예속적인 상태에 살았던 사람들만 사용하던 표현이었다. 히브리어를 비롯한 셈어의 ‘당신의 종’ 역시 예속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로 낮추는 것”으로 이해한다.<sup>17)</sup> 이러한 견해는 ‘저’의 기원과 발전 과정을 이해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만 오늘날 ‘저’가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한다. 오늘날에 이르러 ‘저’는 자신을 낮추어 부르는 1인칭 대명사로서 의미가 굳어졌고 한국어 화자들은 ‘저’를 지시대명사 ‘저’와는 별개의 단어로 인식한다. 다의어가 문법화 과정을 거치면서 동음이의어로 인식되는 경우로 이해할 수 있다.<sup>18)</sup>

‘저’와 용례가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히브리어 겸양 표현 ‘당신의 중’도 이와 비슷하게 원래는 어휘적 의미를 지닌 명사구였으나 문법화 과정을 거쳐 어휘적 의미가 열어지면서 자기를 낮추어 부르는 표현으로 굳어졌다. 그러나 위에서 본 것처럼 한국어 대명사 ‘저’와 달리 히브리어 겸양 표현 ‘당신의 중’은 대명사가 되지 못하고 명사구로 남아 있으며 문법적으로 1인칭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 3.3. 히브리어 겸양 표현 번역의 문제

히브리어 겸양 표현은 한국어 겸양 대명사 ‘저’처럼 일관성 있게 사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한국어에서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 앞에서 자신을 가리킬 때 1인칭 대명사 ‘저’를 사용해야 한다는 규범적 제약이 있지만 히브리어에서는 1인칭 대명사나 접미사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1인칭 주어를 생략하고 1인칭 동사 활용만으로 화자를 가리키기도 한다. 히브리어 겸양 표현의 사용은 화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르는 경우가 많아 언제 겸양 표현을 사용할지 예측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겸양 표현이 사용되었을 때 그 표현이 왜 사용되었을까 추론함으로써 발화의 화용적 의미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국어 겸양 대명사와 히브리어 겸양 표현의 기능에는 차이점도 있지만 서로 겹치는 점도 없지 않다. 히브리어 대화 인용문에 나오는 ‘당신의 중’이라는 표현을 겸양 표현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서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을 경우 독자는 이 표현의 기능을 잘못된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독자는 대화 참여들 사이의 예측 관계를 상정할 수도 있고 화자

17) 전무용, “한국어 성경의 대명사 고찰”, 105.

18) 하이네와 송경안(Heine and Song)은 인칭 대명사의 문법화 과정을 확장(새로운 맥락에서 사용됨), 탈의미화(의미 내용의 상실이나 중립화), 탈범주화(형태-통사적 자질의 상실, 침식(일부 음성 요소의 상실)의 네 단계로 설명한다. B. Heine and K. Song, “On the Grammaticalization of Personal Pronouns”, 591. 히브리어 겸양 표현의 문법화는 적어도 앞의 두 단계까지는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가 지나치게 자기를 비하한다고 오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당신의 종’은 히브리어에서 화자가 자신을 가리키기 위해 가장 흔히 사용할 수 있는 표현으로 일반적인 겸양 표현이다. 히브리어에서 ‘종(רַב, אָמָה, שִׁפְחָה)’ 외에 겸양 표현으로 사용되는 단어는 거의 없다.<sup>19)</sup> 정말로 자기를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려 했다면 ‘당신의 종’이라는 표현만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히브리어 사용자들은 자기를 비하하는 표현으로 수사 의문문을 이용했으며 자기를 ‘(죽은) 개’로 지칭하기까지 했다.<sup>20)</sup>

히브리어 겸양 표현은 한국어의 ‘저’와 통사적 특성이나 사용 빈도에서 차이를 보이긴 하지만 겸양의 정도는 비슷하다. 이 표현을 사용하는 화자가 언제나 대화 상대를 위해 자신의 자유를 스스로 억압한다거나 대화 상대 앞에서 지나치게 비굴한 모습을 보인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다윗과 요나단의 대화(삼상 20:7-8)에서 볼 수 있듯이 히브리어 화자는 때로 전략적으로 이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히브리어에는 겸양 표현 외에 화자 자신을 낮춰서 표현하는 단어가 마땅히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히브리어 겸양 표현을 번역할 때에는 경우에 따라서 높임 선어말 어미를 비롯해 한국어에서 겸양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여러 수단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 4. 사무엘상 1-3장 대화의 한국어 번역본 분석

사무엘상에 나오는 첫 이야기인 사무엘의 성장 이야기에 나오는 대화를 중심으로 한국어 번역이 히브리어 겸양 표현을 어떻게 옮기는지 살펴보려 한다. 대화 참여자를 중심으로 볼 때 사무엘상 1-3장에는 한나와 여호와, 엘리와 한나, 엘가나와 한나, 제사를 드리는 일반인과 제사장의 사환, 엘리와 엘가나, 엘리와 아들들, 사무엘과 엘리, 사무엘과 여호와 사이의 대화가 인용되어 있다.<sup>21)</sup>

##### 4.1. 한나와 여호와(1:11)

19) 가끔 ‘당신의 아들(בְּנֵי)’이라는 표현이 나오지만 ‘당신의 종’에 비해서는 훨씬 더 적게 나온다(삼상 25:8; 왕하 16:7).

20) G. W. Coats, “Self-Abasement and Insult Formulas”, *JBL* 89 (1970), 14-26. 자신을 ‘개’로 비하하는 표현은 삼하 9:8과 왕하 8:13에 등장한다. 또한 “티끌이나 재”(창 18:27)와 “벼룩”(삼상 24:15; 26:20) 등의 표현도 사용된다.

21) 1:11에 기록된 한나의 짧은 기도와 달리 2장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2:1-11)와 하나님의 사환이 엘리에게 전한 여호와와의 말씀(2:27-36)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대화로 보기 어려워 논의에서 제외한다.

1:11에는 한나가 울면서 기도하며 맹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여호와와의 대답은 생략되어 있다. 이 한 절의 기도문 안에서 한나는 자신을 여러 방식으로 가리킨다. 1인칭 접미사(י-와 ו-)와 동사 활용형(ת-)이 사용되며 이와 더불어 אַתָּה(‘당신의 종’)라는 표현이 세 번에 걸쳐 나온다. 이 표현은 한나가 여호와 앞에서 자신을 낮춤으로써 대화 상대인 여호와를 높이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개역개정』은 이 표현을 세 번 모두 “주의 여종”으로 번역한다. 『공동개정』은 처음 두 곳에서는 “이 계집종”으로 번역하지만 마지막 것은 번역하지 않는다. 『새번역』은 처음 둘을 “주님의 종”으로, 마지막 것은 “이 종”으로 옮긴다. 반면 가톨릭의 『성경』은 첫 번째 것을 “이 여종”으로, 나머지 둘은 “당신 여종”으로 옮긴다.

#### 4.2. 엘리와 한나(1:14-18, 26-28)

엘리와 한나는 두 차례에 걸쳐 대화를 나눈다. 첫 대화(1:14-18)는 마음이 괴로워 기도하고 있는 한나를 엘리가 발견하고 말을 거는 것으로 시작된다. 엘리는 한나가 포도주에 취한 것으로 오해하고 포도주를 끊으라고 충고한다. 한나는 엘리를 אֲנִי(‘나의 주’)라고 부르면서 자신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다고 반박한다(1:15). 여기서 한나는 자신을 אֲנִי로 가리킨다. 또한 자기를 나쁜 사람 취급하지 말 것을 부탁한다. 다음 절에서 한나는 자신을 가리켜 אַתָּה(‘당신의 종’)란 겸양 표현을 사용한다(1:16). 엘리가 상황을 파악하고 한나를 축복하자 한나는 אַתָּה(‘당신의 종’)라는 겸양 표현을 사용하여 엘리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한다(1:18). 여기서 사용된 ‘종’이라는 표현은 앞서 사용된 표현과 원어에서 차이가 나며 미묘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두 표현 모두 화자인 같은 사람을 가리키며 청자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표현이다.<sup>22)</sup>

한편, 한나가 사무엘을 낳아 하나님께 바치려고 엘리에게 왔을 때에는 한나의 말만 인용되고 엘리의 대답은 언급되지 않는다. 한나는 엘리를 가리키는 אֲנִי라는 표현을 두 번 사용한다.<sup>23)</sup> 또한 한나는 엘리에게 말하면서 1인칭 대명사를 다른 형태로 한 번씩 사용한다. 앞서 15절에서 엘리에게 자기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때에는 자신을 אֲנִי로 가리키지만 26절에

22) 두 표현의 차이에 대한 연구로는 위의 각주 12를 보라.

23) 삼상 1-3장 본문 중에 자기를 낮추어 사실상 상대를 높이는 겸양 표현은 여러 차례 나오지만 상대를 직접 높여 가리키는 존대 표현은 등장하지 않는다. 1:15와 26절에 나오는 אֲנִי는 상대를 높여 부르는 호칭어로 사용되었다.



서 사무엘을 데리고 가서 엘리를 만날 때에는 אֲנִי를 사용한다. 26절에서 한나는 자기가 바로, 이곳에서 엘리가 보는 앞에서 여호와께 기도했던 그 여자라는 사실을 밝힌다. 더 나아가 사무엘을 영원히 여호와께 바치겠다고 맹세하는 27-28절에서도 한나는 겸양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26절은 15절과 달리 한나의 기쁨과 자신감을 드러내는 구절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감정을 드러내면서 한나는 1인칭 대명사 אֲנִי와 אֲנִי 중에서 자신의 주도성이 좀 더 강하게 드러나는 אֲנִי를 사용하고 있다.<sup>24)</sup> 26-27절에 인용된 한나의 말에 대한 엘리의 대답은 나오지 않는다. 한나가 대화에서 주도적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한나의 주도적이고 자발적인 의사소통 행위에 1인칭 대명사의 형태도 어느 정도 이바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상대방을 높여 부르는 표현인 אֲנִי(1:15, 26)는 『개역개정』에서 “내 주(여)”로, 『공동개정』에서 “사제님”으로, 『새번역』에서 “제사장님”으로, 가톨릭의 『성경』에서 “나리”로 옮긴다.<sup>25)</sup> 겸양 표현 אֲנִי(1:16)와 אֲנִי(1:18)는 『개역개정』에서 “당신의 여종”으로 옮기고 있으며, 『새번역』에서 “이 종”으로, 가톨릭의 『성경』에서 “당신 여종”으로 옮긴다. 한편 『공동개정』은 16절의 אֲנִי는 “이 계집종”으로 번역하면서 18절의 אֲנִי는 어휘적으로 번역하지 않는다.

1인칭 대명사 אֲנִי(1:15)와 אֲנִי(1:26)는 『개역개정』에서는 ‘나’로 옮기지만 『공동개정』과 가톨릭의 『성경』에서는 ‘저’로 옮긴다. 한편 『새번역』은 15절의 אֲנִי는 ‘저’로 번역하면서 26절의 אֲנִי는 ‘나’로 번역하고 있다. 『새번역』이 다른 곳에서는 ‘저’라는 1인칭 대명사를 사용하면서 여기서는 ‘나’로 번역한 점을 주목할 만하다.<sup>26)</sup> 원문에 나타난 한나의 기쁨과 주도성을 살려 번역한 것으로 보인다.

#### 4.3. 엘가나와 한나(1:8, 22-23)

24) E. J. Revell, “Two Forms”, 211.

25) 1:26에 두 차례 등장하는 אֲנִי를 『공동개정』과 가톨릭의 『성경』은 모두를 실명사인 “사제님”과 “나리”로 각각 번역하고 2인칭 접미사까지도 같은 호칭으로 번역하여서 해당 호칭이 세 번씩 등장한다. 반면 『새번역』은 첫 번째 것을 “제사장님”으로 번역한 후 두 번째 것을 번역하지 않는 대신 2인칭 접미사를 “제사장님”으로 번역한다.

26) 전무용은 『새번역』이 ‘저’를 일부 사용하기도 하면서 기도나 독백의 맥락에서는 ‘나’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언급한다. 전무용, “한국어 성경의 대명사 고찰”, 106-107, 119. 『새번역』은 ‘나’와 ‘저’를 일관되게 사용하지 않는 것 같다. 예를 들어, 『새번역』 삼상 21:8에서 다윗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저는 임금님의 명령이 너무도 급하여서, 나의 칼이나 무기를 가져 오지 못했습니다.”

엘가나와 한나의 대화 역시 두 차례 기록되어 있다. 첫 대화(1:8)에는 고통스러워하는 한나를 엘가나가 위로하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한나의 대답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둘째 대화(1:22-23)에서는 한나가 아들 사무엘을 여호와께 바칠 계획을 설명하자 엘가나가 여기에 동의한다.

8절에서 엘가나는 아내의 이름인 ‘한나’를 부른 후 2인칭 동사 활용(2회)과 2인칭 접미사(2회)로 한나를 가리킨다. 자신을 가리키는 데에는 1인칭 대명사 **אֲנִי**를 사용한다. 엘가나는 아내를 위로하는 상황에서 자신을 내세우는 **אֲנִי**보다 **אֲנִיךָ**를 사용해 아내에게 공감을 표현하고 있다.

22절에서 한나는 1인칭 동사 활용으로 자신을 가리키고 23절에서 엘가나는 동사 명령형 활용(2회)과 2인칭 접미사를 사용하여 한나를 가리킨다. 한나와 엘가나의 대화 인용문은 두 사람 사이의 대화가 평등한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한나는 남편 앞에서 겸양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오히려 엘가나가 8절에서 자기를 낮추어 공감하는 기능을 갖는 대명사 **אֲנִיךָ**를 사용하고 있다.

『개역개정』은 엘가나가 한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한나여”로 번역하고 이어지는 2인칭 표현들은 “그대”로 옮긴다. 가톨릭의 『성경』은 이 두 표현을 각각 “한나”와 “당신”으로 번역하며 『새번역』은 “여보”와 “당신”으로 옮긴다. 『공동개정』은 엘가나가 한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대화에 포함시키지 않고 “한나를 보고”로 번역하며 나머지 2인칭 표현들은 “당신”으로 옮긴다.

이 모든 한국어 번역본에서 엘가나는 자신을 가리킬 때 ‘나’를 사용하고 있다. 한나는 『개역개정』과 『새번역』에서는 자신을 ‘나’로 가리키지만 다른 두 번역본은 주어를 생략하고 있다(1:22). 엘가나와 한나의 대화를 옮긴 한국어 번역본에서 특징적인 점은 엘가나와 한나가 다른 등급의 높임법 종결형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두 사람의 대화를 옮긴 한국어 번역에서 종결형이 포함된 어절은 다음과 같다. 괄호 안에 ‘한나’라고 표기한 것 외에는 모두 엘가나의 말이다.

『개역개정』: 슬프냐, 아니하냐, 하리이다(한나), 기다리라, 원하노라

『공동개정』: 하오? 암소? 뵈겠습니다(한나), 하겠습니다(한나), 하구려, 있으시오, 바라오

『새번역』: 하오? 거요? 하겠소? 합니다(한나), 바치겠습니다(한나), 하시오, 있으시오, 바라오

가톨릭 『성경』: 하오? 암소? 하겠습니다(한나), 기다리시오, 뿐이오

이 모든 번역은 한결같이 한나가 하는 말을 엘가나가 하는 말보다 좀 더

높은 등급의 종결형으로 번역하고 있다. 『개역개정』에서 엘가나는 해라체를 사용하고 한나는 합쇼체를 사용한다. 나머지 세 번역본에서는 엘가나가 하오체를 사용하고 한나는 합쇼체를 사용한다.<sup>27)</sup> 한국어 번역본들은 이처럼 부부 사이의 대화를 번역할 때 흔히 남편이 아내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번역하고 있다.<sup>28)</sup>

고영근과 구분관은 따르면 20세기 초에는 “혼인에 의한 정식 부부간은 서로 하오체를 사용”하였으며 예외적으로 신혼인 경우 친밀감이 부족하여 서로 합쇼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sup>29)</sup> 위에서 인용한 한국어 번역은 모두 20세기 초의 언어 상황을 반영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언어 상황과도 맞지 않는 번역이다. 즉,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수평적 관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번역인 것이다. 더구나 엘가나가 특별한 지위에 있는 인물도 아니며 이 부부의 대화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 원문 어느 곳에서도 엘가나가 한나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거나 한나가 특별히 엘가나를 높이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엘가나가 1인칭 대명사 **אני**를 사용해 한나를 위로하면서 그와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성경이 기록될 당시 사회에 어느 정도 가부장적이고 여성 차별적인 요소가 있었을 것이고, 성경을 기록하고 편집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남성들이 이러한 사회적 상황을 성경 본문에 반영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sup>30)</sup> 그러나 원문에도 없는 차별적 요소를 더해 넣은 번역본은 자칫 성경을 읽는 사람들의 차별적 사고방식을 조장하거나 강화할 우려가 있다.

#### 4.4. 제사장의 일꾼과 제사를 드리는 사람(2:15-16)

2:15-16에서는 제사장의 일꾼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승강이를 벌인다.

27) 고영근과 구분관은 20세기 전반 높임법의 격식체를 해라체, 하계체, 하오체, 합쇼체의 4등급 체계로 보며 20세기 후반부터 2등급 체계로 간소화되고 있다고 파악한다. 고영근, 구분관, 『우리말 문법론』(서울: 집문당, 2008), 445.

28) 예를 들어, 『공동개정』과 『새번역』은 아브람과 사래의 대화(창 16:2, 5-6)나 리브가가 이삭에게 하는 말(창 27:46) 등을 이와 같은 등급에 따라 옮기고 있다. 그러나 이 번역본들은 라헬과 야곱의 대화(창 30:1-2)를 번역할 때 라헬의 말은 여러 단계의 높임법에 두루 쓰일 수 있는 비격식체 해오체로, 야곱의 말은 격식체 중 하오체로 옮기고 있다. 마노아와 그 아내의 대화(삿 13:22-23)는 『새번역』이 각각 하오체와 합쇼체로 옮기는 반면 『공동개정』은 마노아의 말은 비격식체 반말인 해체, 그 아내의 말은 합쇼체로 옮기고 있다.

29) 고영근, 구분관, 『우리말 문법론』, 448-449.

30) 밀러는 구약 성경에서 아무리 지위가 높더라도 여자를 대상으로 높임 표현이 사용된 적이 없음을 지적하면서 그 원인이 본문의 가부장적 태도에 있는지 아니면 당시 사회적 관행에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한다. C. L. Miller, *The Representation of Speech*, 280.

먼저 제사장의 일꾼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와서 기름을 태우기 전에 제사장이 구워 먹을 고기를 내놓으라고 요구한다. 그러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기름을 태운 다음에 가져가라고 하고 제사장의 일꾼이 여기에 반발하여 강제로 빼앗으려고 한다. 제사장의 일꾼과 제사를 드리는 사람 모두 상대방을 2인칭 동사 활용형과 접미사로 가리키고 있으며 제사장의 일꾼은 자신에 대해 1인칭 동사 활용형을 사용하고 있으나 두 경우 모두 겸양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다.

『개역개정』에서는 대화 참여자 양쪽 모두 비격식체인 반말을 사용하고 있다. 『공동개정』은 양쪽 모두 해체를, 『새번역』과 가톨릭의 『성경』은 양쪽 모두 하오체를 사용하고 있다. 번역에 사용된 대명사를 보면, 『개역개정』은 ‘너’와 ‘나’를 사용하고 있으며 다른 번역은 대명사를 흔히 생략하는 한국어의 일반적인 어법에 맞춰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다투는 두 사람의 상황을 잘 반영한 높임법 사용이다.

#### 4.5. 엘리와 엘가나(2:20)

2:20에서는 엘가나와 한나 부부에게 엘리가 복을 빌어 준다. 서술자는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고 한다. 그러나 인용문을 보면 엘리의 축복은 형식적으로는 엘가나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복을 받는 대상을 지시할 때에 2인칭 남성 접미사(ㄱ)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엘리는 제사장으로서 엘가나보다 지위가 높기 때문에 당연히 높임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개역개정』에서는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게 다른 후사를 주사”로 직역에 가까운 번역을 하고 있지만 『공동개정』은 “이 부인 몸에서 후손이 나게”로, 『새번역』은 “두 분 사이에, 이 아이 대신에 다른 자녀를 많이 주시기를”로, 가톨릭의 『성경』은 “이 여인에게서 난 후손으로 그대에게 갓아 주시기”로 번역한다. 『개역개정』과 가톨릭의 『성경』만 ‘너’와 ‘그대’라는 2인칭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으며 다른 두 번역은 2인칭 대명사를 생략한다.

#### 4.6. 엘리와 아들들(2:23-25)

엘리는 악한 행동을 저지른 아들들을 꾸짖고 있다. 엘리의 꾸짖음에 대한 아들들의 대답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대신 엘리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는 서술자의 진술이 엘리의 말에 이어서 기록되어

있다. 엘리는 자기 아들들을 “나의 아들들(בני)”이라 부른다(2:24). 『개역개정』이 “내 아들들아”로 원어에 가깝게 옮기는 이 표현을 『공동개정』과 『새번역』은 “이놈들아”로 옮긴다. 가톨릭의 『성경』은 개역과 같이 “내 아들들아”로 번역한다. 『공동개정』과 『새번역』의 “이놈들아”라는 번역은 복수인 상대방을 낮추어 부르는 표현으로 아들들을 향한 엘리의 분노를 잘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번역이다. 히브리어에서 상대방을 자신의 ‘아들’이라 부르는 표현은 혈통상의 아들이나 나이 어린 사람을 친근하게 부를 때 사용되었다.<sup>31)</sup> 실제로 3장에서 엘리는 사무엘을 ‘내 아들’이라 부르고 있다. 엘리가 아들들에게 분노를 표현하려 했다면 아마 다른 표현을 사용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사울은 요나단에게 화를 낼 때 그를 ‘내 아들’이라 부르지 않고 “반역하는 비뚤어진 여자의 아들(בן־נעוֹת הַמְרִידוֹת)”이라 부른다(삼상 20:30). 엘리가 사용한 “내 아들들”이라는 표현은 아들들을 향해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 바른 길을 가라고 충고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내는 표현이므로 가능하면 좀 더 부드럽고 따뜻한 한국어 표현으로 번역할 필요가 있다.

#### 4.7. 사무엘, 엘리, 여호와(3:4-18)

3장에는 어린 사무엘과 엘리의 대화가 두 차례 기록되어 있다. 먼저 4-9절에서는 여호와가 부르는데 엘리가 부른 것으로 오해한 사무엘이 세 번이나 엘리에게 달려가는 장면이 나온다. 엘리는 세 번째 같은 일이 벌어지고 나서야 여호와가 사무엘을 부른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음에 여호와가 부르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를 사무엘에게 알려 준다. 이렇게 엘리는 사무엘과 세 번 대화를 나누는데 두 번째 대화에서는 특징적으로 사무엘을 ‘내 아들’이라고 다정하게 부른다(3:6). 세 번째 대화에서는 다음에 여호와가 부르면 다음과 같이 말하라고 사무엘에게 일러 준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개역개정』 삼상 3:9)

실제로 여호와가 사무엘을 네 번째로 부르자 사무엘은 엘리가 일러 준 방식으로 대답한다(3:10). 사무엘의 실제 대답은 엘리의 지시와 조금 달리 ‘여호와여’라는 표현을 생략했지만 ‘주의 종(עַבְדִּי)’이라는 표현은 그대로 반복한다. 앞서 사무엘은 여호와가 부른 것을 엘리가 부른 것으로 오해하

31) H. Haag, “בן”, *TDOT* 2, 152; C. L. Miller, *The Representation of Speech*, 270-271.

고 엘리에게 와서 대답할 때 자신을 가리키기 위해 세 번 모두 1인칭 접미사(אני, ו)와 2인칭 동사 활용(קראת)을 사용했을 뿐 겸양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다(3:5, 6, 8). 그러나 엘리는 어린 사무엘에게 겸양 표현을 가르쳤고 사무엘은 그 가르침에 따라 여호와를 대상으로 겸양 표현을 활용하여 대답한다.

여호와는 자신을 가리키기 위해 1인칭 대명사 אנכי를 사용한다(3:11). 러벨은 뒤따르는 말을 해석하는 틀이 되는 문장 또는 도입 문장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אני로 가리킨다고 하며 사무엘상 3:11을 그 예로 제시한다.<sup>32)</sup> 그러나 여기서 אנכי는 여호와가 스스로를 낮추어 어린 사무엘의 수준에서 말하는 것을 표현한다고 볼 수 있다.<sup>33)</sup> 여호와와 심판은 사무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엘리의 집을 향한 것이며 이 말씀에 대한 사무엘의 반응도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튿날 아침 엘리는 사무엘을 부른다(3:16). 그는 ‘내 아들’이란 호칭을 사용한다. 6절에서도 이 호칭이 사용되었지만 여기서는 “사무엘 내 아들”이라고 하여 ‘사무엘’과 동격으로 사용된다. 사무엘이 대답하자 엘리는 여호와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묻고 사무엘이 이에 답하자 자신의 심경을 표현한다. 엘리의 부름에 대한 사무엘의 대답에서 주목할 점은 “אני(내가 여기 왔습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밤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사용했던 겸양 표현은 등장하지 않는다.

사무엘이 엘리에게 대답할 때 여러 번 사용된 אני에 포함된 1인칭 접미사를 『개역개정』은 ‘나’로 옮기고 『새번역』과 가톨릭의 『성경』은 ‘저’로 옮기며 『공동개정』은 기능적으로 번역하여 접미사를 생략하는 대신 이 표현 전체를 “예”라는 대답으로 옮긴다. 3:9와 10의 עבדך는 『개역개정』에서 “주의 종”으로, 『공동개정』에서 “종”으로, 『새번역』에서 “주님의 종”으로, 가톨릭의 『성경』에서 “당신 종”으로 번역한다. 한나가 사용한 겸양 표현의 번역과 마찬가지로 모든 번역에 ‘종’이라는 형태소가 들어 있다.

## 5. 히브리어 겸양 표현의 번역

32) E. J. Revell, “Two Forms”, 213.

33) 러벨은 여호와와 אני 사용을 여호와와 겸손 혹은 겸양과 연결시킬 수 있다고 하면서,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말할 때보다 여호와가 사람에게 말할 때 אני의 사용이 빈번한 이유는 여호와와 사람의 지위와 달리 확고부동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측한다. Ibid., 214.

한국어 번역본들은 한나가 여호와나 제사장 앞에서 자신을 낮추어 가리키는 겸양 표현을 번역할 때 이 표현의 어휘적 의미에 포함된 ‘중’이라는 형태소를 사용하고 있다. 화자가 여성인 경우 “여중”이라 옮기기도 하는데 ‘중’이 반드시 남성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새번역』처럼 “중”이라 번역하는 편이 낫다.<sup>34)</sup> 더욱이 『공동개정』의 “계집중”이라는 표현은 본문의 의도와 달리 지시 대상을 지나치게 낮추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공동개정』은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사용한 겸양 표현을 ‘사내중’이라 하지 않고 “중”이라 번역하면서 한나가 사용한 공손 표현은 “계집중”으로 옮긴다. 이런 경우 성에 관해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편이 더 나을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의미 중심의 번역을 추구할 경우 한나나 사무엘이 사용한 ‘중’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한나는 절박한 기도를 드리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기 위해 겸양 표현을 사용한다. 사무엘 역시 엘리에게 가르침에 따라 평소에 엘리를 대하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여호와를 높이기 위해 겸양 표현을 사용한다. 그러나 화자를 가리키기 위해 사용된 ‘중’이라는 표현은 오늘날 한국어의 쓰임새와 맞지 않다. 오늘날 한국어 사용자들은 자신을 낮추기 위해서 ‘중’이나 그와 관련된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오늘날 한국어에서는 겸양 대명사 ‘저’가 히브리어 겸양 표현과 어느 정도 대응 관계에 있다. 그러나 한국어 겸양 대명사와 달리 히브리어 겸양 표현은 화자를 가리키기 위해 한 문장이나 단락 안에서 일관되게 사용되지 않는다. 히브리어 화자는 2인칭 대명사나 접미사 또는 동사 활용을 이용할 수 있으며 때에 따라 선택적으로 겸양 표현을 써서 자기를 낮춤으로써 청자를 높일 수 있었다. 그러므로 히브리어 겸양 표현을 ‘저’와 일대일 대응 관계로 이해하고 번역할 수는 없다. 히브리어 겸양 표현을 ‘저’로 옮기면서 적절한 높임 표현을 곁들이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겸양 표현을 ‘저’로 번역하고 다른 1인칭 표현은 높임 선어말 어미 등을 이용하면서 2인칭 대명사를 쓰지 않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겸양 표현을 어휘적으로 번역하려 한다면 각주를 활용해 히브리어 표현의 화용적 의미를 설명해 주는 방법도 고려할 만하다.

사회적 지위가 낮은 화자가 높은 사람에게 말할 때 겸양 표현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주목해야 한다. 이런 경우 화자가 겸양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를 찾을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사무엘이 엘리에게 말할 때 겸

34) 『새번역』의 “주님의 중”은 2인칭 접미사를 ‘주님’으로 번역한다. 『새번역』은  $\text{הוּא}$  역시 ‘주님’으로 번역하기 때문에,  $\text{הוּא}$ 도 ‘주님의 중’으로 번역된다는 문제가 있다.

양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사무엘이 아직 어리고 엘리와 친밀한 관계라는 맥락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엘리가 사무엘을 ‘내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한다. 또한 사회적 지위가 비슷한 대화 참여자가 겸양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번역자의 생각으로 원문에 없는 화자와 청자 사이의 위계 구조를 만들어 내는 일도 피해야 할 것이다. 엘가 나와 한나의 대화를 옮길 때 한국어 번역본들이 높임법 체계에서 다른 등급의 종결형을 사용한 것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

## 6. 맺음말

본 논문에서는 구약 성경 이야기에 등장하는 화자 지시 겸양 표현 ‘당신의 중’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고찰해 보고 그 기능이 한국어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될 수 있을지를 논의했다. 그 예로 사무엘상 1-3장의 대화를 중심으로 겸양 표현을 비롯한 대화 참여자들의 높임법 사용을 살펴보았다. 히브리어 겸양 표현은 대체로 청자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은 화자가 청자를 높이기 위해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으로서 어휘적 의미는 거의 잃어버린 채 대화의 상황에서 화자 자신을 낮추는 기능을 한다. 이 점에서 히브리어 겸양 표현은 한국어 겸양 대명사 ‘저’와 상당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이처럼 어휘적 의미가 퇴색한 겸양 표현을 문자 그대로 어휘적 의미를 살려 번역하거나 지나치게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해서 옮기면 원문의 의미를 왜곡할 수 있다. 따라서 히브리어 겸양 표현은 문자적 번역을 피하고 가능한 경우 우리말 높임법 체계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번역할 필요가 있다.

### <주제어>(Keywords)

겸양 표현, 겸양 대명사, 중, 번역, 사무엘서.

Deferential Self-Reference, Deferential Pronoun, Servant, Translation, Book of Samuel.

(투고 일자: 2016년 7월 30일, 심사 일자: 2016년 8월 25일, 게재 확정 일자: 2016년 9월 19일)



## &lt;참고문헌&gt;(References)

- 고영근, 구본관, 『우리말 문법론』, 서울: 집문당, 2008.
- 김성연, “정중 어법과 우리말 존대법: 에스더기를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37 (2015), 84-106.
- 이장희, “겸양 대명사 ‘저’ 생성의 과정”, 『嶺南學』 19 (2011), 471-500.
- 전무용, “한국어 성경의 대명사 고찰”, 『성경원문연구』 19 (2006), 96-122.
- Bridge, E. J., “Loyalty, Dependency, and Status with YHWH: The Use of ‘bd in the Psalms”, *Vetus Testamentum* 59 (2009), 360-378.
- Bridge, E. J., “Female Slave vs. Female Slave: אִמָּה and אִמָּהָ in the HB”, *Journal of Hebrew Studies* 12 (2012), 1-21.
- Bridge, E. J., “The ‘Slave’ Is the ‘Master’: Jacob’s Servile Language to Esau in Genesis 33.1-17”,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38 (2014), 263-278.
- CAD = Oriental Institute, University of Chicago, *Chicago Assyrian Dictionary*, 21 vols., Chicago: Oriental Institute, 1956-2010.
- Coats, G. W., “Self-Abasement and Insult Formulas”,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89 (1970), 14-26.
- Del Olmo Lete, G. and Sanmartín, J., *A Dictionary of the Ugaritic Language in the Alphabetic Tradition*, Leiden; Boston: Brill, 2003.
- Di Giulio, M., “Mitigating Devices in Biblical Hebrew”, *Kleine Untersuchungen zur Sprache des Alten Testaments und seiner Umwelt* 8/9 (2008), 33-62.
- Heine, B. and Song, K., “On the Grammaticalization of Personal Pronouns”, *Journal of Linguistics* (2011), 587-630.
- Kim, Y., “Deferential Self-Reference in the Book of Samuel”, *Vetus Testamentum* 65 (2015), 588-605.
- Lindhagen, C., *The Servant Motif in the Old Testament: A Preliminary Study to the Ebed-Yahweh Problem in Deutero-Isaiah*, Uppsala: Lundequistaska Bokhandeln, 1950.
- Miller, C. L., *The Representation of Speech in Biblical Hebrew Narrative: A Linguistic Analysis*, Harvard Semitic Museum 55, Winona Lake: Eisenbrauns, 1996.
- Revell, E. J., “The Two Forms of the First Person Singular Pronoun in Biblical Hebrew: Redundancy or Expressive Contrast?”, *Journal of Semitic Studies* 40 (1995), 199-217.
- Revell, E. J., *The Designation of the Individual: Expressive Usage in Biblical Narrative*, Kampen: Pharos, 1996.

*TDOT* = Botterweck, G. J. and Ringgren, H., eds.,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Old Testament*, J. T. Willis, G. W. Bromiley, and D. E. Green, trans., 15 vols., Grand Rapids: Eerdmans, 1974-2006.

<Abstract>

## **The Translation of Hebrew Deferential Self-Reference: Dialogues in 1 Samuel 1-3**

Yoo-ki Kim  
(Seoul Women's University)

This article focuses on the deferential self-reference expression 'your servant' in Biblical Hebrew and the Korean deferential pronoun *cheo*. There are similarities between these two forms in terms of pragmatic functions. But they differ in their morphosyntactic properties and frequency of use. The Hebrew forms have not been fully grammaticalized to be recognized as pronouns. More importantly, these forms alternate with first-person forms such as pronominal suffixes, verbal conjugations, and independent pronouns.

An examination of the major Korean translations of 1 Samuel 1-3 reveals that most of them simply render deferential self-reference forms lexically, though their lexical meaning cannot usually be found in the original Hebrew text. This type of literal translation could cause confusion among the readers. They might think that the speaker is literally a slave of the addressee or is flattering his/her superior, while in fact the forms are regular means of deference in Hebrew.

Hebrew deferential self-reference forms can better be rendered using the Korean deferential pronoun with the help of other means of deference. In addition, the absence of deferential forms when speaking to a status-marked person can signify that the speaker is on an equal standing or in intimate terms with the addressee. Therefore, both the presence and absence of deferential forms can serve as markers that inform better functional translations.